저희는 모든 한국일정 마치고 치앙라이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고정욱선교사는 오른쪽 눈 시신경이 죽어서 왼쪽 눈 백내장 같은 간단한 수술도 걱정 되었는데 도와주신 안과 선생님이 떠날때까지 팔로우업을 잘 해주셨고, 건강검진도 받고 필요한 치료도 하였습니다.
부모형제와 두아들 요한 유진과도 좋은 시간을 가졌고 한국일정동안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없는동안 가스펠홈에 새로운 아이(파차리 14) 가 들어왔고, 모세가 다오의 인턴십 기관과 합력해 아카족 전도도 열심히 하고, 다오가 마지막 학기에 또 성적 우등상을 받은 소식들을 접하고, 미얀마 신학교에서는 랩센터에서 빵을 배웠던 신학생들이 전도하기 위해 빵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사진과 함께 예레미야 학장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깊이 감사함과 뿌듯함이 밀려옵니다.

굳은 땅을 갈고 씨를 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작은 싹 하나를 발견한것 같은 기쁨을 나누며, 그 싹들이 잘 올라오고 자라주기를, 다시 저희가 있어야 할 땅으로 돌아왔는데 힘에 부치지 않고 한걸음씩 나아가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요.

얼마남지 않은 한해를 돌아보며 지구적으로 유난히 어려움이 많았던 시간들을 거치면서 가스펠홈 가족들이 리빙브레드의 동역자들과 뉴욕교회에 안부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샬롬!

고정욱, 경미 선교사 드림
리빙브레드 치앙라이
타일랜드 미션